

첼리스트 거장 정명화 · 명창 안숙선 색다른 하모니

거장 첼리스트 정명화(73·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감독)와 '인간문화재'인 명창 안숙선(67)이 지역 마을에서 첫 하모니를 들려준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유영하)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2016 예술거장과 함께 하는 예술계상 마을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8월19일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에서 열리는 '계촌클래식 거리축제' 개막공연에서 처음 협연한다.

정명화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년 전 한국에 돌아와서 연주를 하기 전까지 서양 음악을 배우는 데 정신이 없었다"며 "그때 판소리를 듣고 가슴 깊은 감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첼로가 노래(음악)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판소리가 그렇더라. 깊이 마음에 와 닿았다."

8월19일 강원 평창 '계촌클래식 거리축제' 개막공연서 협연

정명화는 지난 1996년 동생인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함께 발표한 음반 '한(恨), 꿈, 그리움'에서 이미 국악을 다뤘다. 작곡가 이영조 작품인 '첼로와 장구'를 위한 '도드리' 등을 연주했다.

"장고와 처음으로 작업한 순간이다. 당시 장고를 치시는 분들 중에 클래식 악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 힘들었다. 하지만 즐거운 작업이었다."

지난해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젊은 음악가들이 클래식과 국악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도 선보인 정명화는 "외국 사람들이 협연을 보고 콤플렉션이 좋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더 기대된다. 안숙선 선생은 평소 존경한 분이시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판소리를 서양 프로젝트로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안숙선은 "판소리가 대중과 만나는 지리가 많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여러 장르를 통해서 판소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그녀는 "특히 정명화 선생과 만나는데, 첼로의 웅성 깊은 성음과 판소리가 잘 맞는다"고 흡족해했다.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명화 선생이 공연 하셨을 때 뒤에서 첼로 음악을 듣고 판소리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 판소리가 첼로를 만나 다양하게 공연이 됐으면 한다."

정명화와 안숙선의 협업곡은 작곡가 임준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가 만든다. 클래식과 국악을 넘나드는 작곡가다.

임 교수는 "클래식과 국악의 두 장르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창작곡이 필요하다"며 "두 선생님의 협연곡을 쓰는 건 영광이다. 판소리, 첼로,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사랑가"라고 전했다.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를 모티브로 해서 3개의 악장으로 작곡한다. 수백년 각자의 길을 달려온 판소리, 첼로의 장르에 대한 고민을 했다. 판소리는 국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성악곡이다. 첼로는 서양 현악기의 정점이다. 깊은 선율에서 성악적인 영혼을 느낄 수 있다."

'예술계상 마을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안숙선이 예술거장으로 참여하는 '제2회 남원 비전 거리국악축제' (6월 17~19일), 정명화가 예술거장으로 함께하는 '제2회 평창 계촌 클래식 거리축제' (8월 19~21일)로 나눠 진행된다. /이성주 기자

정읍 배경 영화 '레나' 오늘 개봉

정읍을 배경으로 한 영화 '레나'가 26일 관객을 찾아간다.

시에 따르면 세네코문이 제작한 영화 레나(감독 채정정)가 26일 CGV 정읍점을 포함한 전국 23개소에서 동시 개봉된다. '레나'는 러시아의 젊은 고령인 3세 여성인 레나가 새로운 삶을 위해 한국에 와서 순수한 시골 총각을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이다.



영화의 주요 배경은 정읍이다. 배경은 90% 이상이 정읍의 문화·관광 자원이 배경이다. 현안다원의 푸른 녹차밭과 유채꽃 필 배들뿐 아니라 그리고 고부면 소재 근대문화유산인 조계동기옥, 신원동 천주교 신성공소 등 정읍의 아름다운 풍경과 명소가 스크린 가득 펼쳐진다.

레나는 아버지를 여의고 러시아 시골에서 자라온 레나가 한국에 오면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행에 오른다. 그리고 녹차를 재배하는 순박한 총각 순구를 만나 사랑을 시작하지만, 문화적 차이 등으로 서로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갈등을 거듭하는데...

극 중 레나역을 맡은 배우 박기림은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아픔이 많지만 밝고 순수한 레나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꾸미지 않은 청순미가 돋보이는 그녀는 레나의 순수함과 사랑에 대한 고민과 방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박기림은 "러시아 고령인 레나를 통해 그들의 삶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고령인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들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따뜻하고 순수한 작품을 통해 아름다운 감성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대역인 순구 역의 김재민도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조연상에 빛나는 뮤지컬 배우다. 순박하고 진지하면서도 코믹스러운 연기를 오가는 사실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펼쳤다. 그 외 인물로 순구의 고향 후배 동만(고희기 분)이 능청스러운 전라도 사투리로 감초 역할을 맡고, 레나에게 사진을 가르쳐 준 사진작가(최호중 분), 레나의 친구 다치(불리아 나탈리아 분)가 등장하여 갈등과 재미를 더 해준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 국립무형유산원 협력사업

'술, 이야기로 빛다' 아카데미 열려

남원시청 강당에서 '맛'에 취하고 '함'에 취하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 한마당이 펼쳐졌다.

'2016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 '술, 이야기로 빛다'라는 주제의 교육을 25일 시청 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한해 동안 여러 가지 협력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하나로서, 무형유산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의 무형유산 자원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는 기회를 만들고 전통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명사가 함께

진행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입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박복담 한국전통주연구소장의 '전통주의 역사와 특징', '전통주의 보존 가치'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전통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판소리 권주가 공연과 국가무형문화재 86호인 문배주, 경주교동법주, 면천두견주, 남원지역 술 등 시음, 술떡 시식을 통해 맛에 취하고 향에 취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참여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판소리 공연과 시음 등을 통해 직접 듣고, 맛보며, 느끼며 6강 만족을 이끌어내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꾸며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 '술, 이야기로 빛다'라는 주제의 교육을 25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져 참석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전통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잔 술잔의

주법에 감회가 새롭다"며 "무형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전통문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북작가회의 월례문학토론회 내일 최명희문학관서



(사)전북작가회의(회장 김병용) 월례문학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린다.

이번 월례토론회 대상 작품과 작가는 이병초 시인의 시집(까치 독사)과, 그리고 서철원 소설가의 장편소설(왕의 초상)이다.

토론회는 동료 문학과 시인의 시·소설 낭송, 이병초·서철원 작가와의 대화, 기념선물 전달 등으로 꾸며진다.

이날 (까치 독사)의 발제를 맡은 정동철 시인은 "백석 시인이 함경도 언어와 북방 정서를 자신의 영토로 하고 있다면 이병초 시인은 전북의 언어와 함을 영토로 하고 있다."면서 "시인의 언어와 정서의 특징은 분노·절망·소외에 기초하면서도 흥겨움과 여유를 잃지 않는 것에 있고, 이는 시인의 영토가 더 넓게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왕의 초상)의 발제를 맡은 신귀백 영화평론가는 "붓과 칼이라는 데데일들을 직조해 서사담화를 이루어내는 솜씨는 서철원 특유의 고아한 문체의 힘에서 온다."면서 "조선의 비단을 닮은 작가의 문장은 한 여인의 복수극이라는 뻔한 이야기에 내려타버리는 질서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월례문학토론회는 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문의 275-2266

/정해은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내일 '장인이 피워 낸 꽃' 전시

전통공예 속에 나타난 꽃을 주제로 한 특별전 '장인이 피워 낸 꽃'이 오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종교의례의 제단을 장식하는 종이꽃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문인의 지성사 속에서 피어난 문화의 전통 등을 조명하여 '꽃'으로 상징된 한국 전통문화를 전반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작품 중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불교에서 영혼천도를 위하여 행하는 종교의식)와 국가무형문화재인 동해안별신굿(부산 동래로부터 강원도 고성군에 이르는 남부 동해안 지역일대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마을굿)에서 볼 수 있는 종이꽃 '지화'는 불교의례와 무속의 굿에서 지화 장엄의 전통을 잘 간직해 대표적이다.

이는 의례 공간을 신성한 장소로 변환하고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는 주요 장엄

구로서 종이꽃이 지닌 상징성을 잘 드러낸다.

또한 조선 후기 북학과 문인들이 즐겨 제작하고 감상한 밀랍 매화 문화제(별집에서 채취한 밀랍으로 빚어 만든 매화)에서는 조선 후기 새로운 전통으로 성립된 꽃 공예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덕무의(문화매집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했다.

전시회 기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8세 이상 어린이(15명)를 대상으로 특별전 전시해설과 함께 전승자가 직접 공예 제작방법을 가르쳐주는 체험교육 '내가 피워 낸 꽃'이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280-1471.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임실문화원, 내 지역 알기 문화탐방 나서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은 25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알리기 유적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임실지역의 문화유적을 '지역민들이 먼저 알아야 홍보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실시한 이번 탐방은 지역문화를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날 탐방은 구한말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과를 올렸던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를 배향한 소촌사 참배를 시작으로 사선대에 있는 운서정, 신평면 생활사박물관, 진구사지 석등 일원과 도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 신청 중인 신평면 상가마을의 유산형 안락화도 담사를 실시했다.

이후 답사객들은 아름다운 옥정호 주변 요산공원과 덕치사거리 고인돌 군락지를 둘러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로 추앙받고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가 보존된 임실읍 정월리 당쪽에 김복규 김기중 부자의 효자비각 담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이번 문화탐방행사를 주관한 최성미 문화원장은 "앞으로도 내 고향 바로 알기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답사에 참가했던 참가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추사 선생의 진면모를 일부나마 체험했으며, 임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한층 더 느껴보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문화알기 문화탐방 신청은 임실문화원(☎063-642-2211)으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26일)

<p>▷쥐띠 46년생: 동기간과의 화합에도 중요하며 타인과의 관계에도 좋은 운이다. 60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72년생: 일적인 능률이 좋은 운. 84년생: 미루지 말고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p>	<p>▷소띠 49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니 투자는 불리하다. 61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행동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게 되니 주의하라. 73년생: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운이니 주의하라.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다.</p>	<p>▷호랑이띠 50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운. 62년생: 사교수가 있으니 운전은 삼가라.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86년생: 정신적으로도 편안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운이니 매사에 주의하라.</p>	<p>▷토끼띠 51년생: 투자가 투기는 삼가라. 63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설수가 따르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마음쓰지 마라.</p>
<p>▷용띠 52년생: 미련을 버려라. 64년생: 쥐띠와 화합하여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88년생: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p>	<p>▷뱀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그리치게 되니 매사를 냉정하게 처리하라. 77년생: 지나간 일들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89년생: 상대를 믿지 마라.</p>	<p>▷말띠 54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될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 6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위에 손을 내밀어보라. 78년생: 다른 사람에게 경쟁심과 적대감을 느끼는 운.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p>	<p>▷양띠 55년생: 금전적으로 기운이 좋은 운. 67년생: 마음을 다스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다. 79년생: 무리한 투자는 금하고 때를 기다려라.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p>
<p>▷원숭이띠 56년생: 손이라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긴다. 68년생: 물다리로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할 때. 80년생: 좋은 일하고 뺄 맞는격.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p>	<p>▷닭띠 57년생: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되니 커피리도 대접하라. 81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개띠 46년생: 같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58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70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8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으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p>	<p>▷돼지띠 47년생: 말을 걸러서 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겠다. 59년생: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라. 71년생: 여성은 발등에 다니면 흥한일이 발생하니 다른사람과 동행하거나 일찍 귀가하는것이 상책이다. 83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p>